

임인자 광주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 문체부 장관상

'제8회 서점의 날 기념식' 서 수상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모임 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점을 운영해 오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점에 방문하는 독자, 독서모임 참여자, 상주 작가, 총장상인분 등 소년의서와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주 독립서점 '소년의 서' 임인자(사진) 대표가 지난 11월 서점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제8회 서점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임 대표는 "동네서점은 대형 출판사나 유명 작가 뿐만 아니라, 작지만 실력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하는 중요한 장소다. 앞으로도 소년의서는 우리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연대



생각하며 '소년의 서'라고 책방 이름을 짓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해 왔다.

광주극장 옆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임 대표는 총장로 역사와 기록을 공유하는 책 '총장디스커버리'를 썼다. 이 책을 계기로 광주동구청과 함께 '동구의 인물'을 제

해나갈 수 있는 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복지원 사건을 알린 책 '살아남은 아이'를 팔고 싶어 서점 운영을 시작했다. 임 대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짓고 싶었다. 그는 5·18민주화 운동을 담은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를

작했고, 총장상인회와 함께 '총장으로 오래된 가게'를 펴내며 지역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만들었다. 또 송기영, 안미선 등 수많은 작가들과 북토크도 진행했으며 올해는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황지은 작가와 매주 화요일 5·18, 자금심, 기후위기, 아시아 등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모임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후원으로 '가치서점X지역상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장시장 with 지구농장' 행사를 진행했다.

"동네서점을 지키고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을 서로 이어주는 동네책방이 작가, 독자, 출판 생태계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임 대표는 "수통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도시정거장의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11일 '서점의 날'은 '서가에 꽂힌 책(冊)'과 '줄지어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는 날짜로, 전국 서점과 서점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UP 콘서트' 성료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최근 환경보전사업 UP프로젝트의 일환인 'UP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크리에이티브아트가 주최하고 무지개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는 플

라스크 콰르텟,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우물안개구리 총 3팀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UP 프로젝트는 파우치 제작 체험을 시작으로 연시아클링 악기 전시회, 칼리바 제작, UP 콘서트 등을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광주센터 직원들이 행사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공기관 ESG 경영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김대민 기자 kdi@

이름주간보호센터, 장애·비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름주간보호센터(대표 최정인)가 주최한 '이름 공감 어울림 한마당행사'가 최근 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센터 이용자와 가족, 인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관계자,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손희숙),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센터 이용자들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제작했던 '인권' 주제 타일 벽화와 작품 전시회, 서구형 평생학습도시운영사업 지원을 받은 리

듬타악기 공연, MJ뮤직테라피 박미진 대표와 단원들의 난타, 색소폰 공연과 '인권트리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노대비어 '착한가게' 현판식

광주 남구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덕근)는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노대비어(대표 이형선)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업인 착한 가게는 수익

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가게에 수여되는 인증이다. 노대비어는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았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중모)가 최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으로 '2024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남개발공

사와 함께 기획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 총 1000호의 신축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결혼하자 맹꽁아(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2024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55 SBS 10 뉴스
10	00 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살리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빠뽀 좋아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후구조대(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도시락(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싱크로유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시사타치! 때때부따 35 시장의 폭력 스페셜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20 더 탄탄라(재)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5 닥터 365 10 동상이몽2 내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곰곰아(재)	55 아이 러브 스포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15 스모킹 건(재)	30 스포츠 매거진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디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9:50 왔다! 내 손주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15 모두 함께 버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인도네시아 산골 기행 - 걷다 보니, 풀라우상카르>
07:30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07:45 메탈카드봇S 경찰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똥다 툰다 K 디지털 1부 '달달이'들의 진화>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불블스	21:55 PD로그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특집 다큐 -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40 마사와 곰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20 자이언트 펭TV	16:55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PD로그	17:10 명탐정 피트4	
10:30 한국기행(재)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음 10월 18일 丙戌)

<p>36년생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48년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띠는 단계에 진입한다. 60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2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84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96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올 수이다. 행운의 숫자 : 10, 55</p>	<p>42년생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기쁜 시간을 나누리라. 54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66년생 이제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78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방심한다면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 90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02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라. 행운의 숫자 : 22, 67</p>
<p>37년생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어 예를 댈 것이다. 49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61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행이 해소되리라. 73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85년생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97년생 많은 부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69</p>	<p>43년생 막연한 희망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55년생 몸살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7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을 가능케 하리라. 79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수용하는 것이 좋다. 91년생 우려할 만한 일이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03년생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74</p>
<p>38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50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62년생 의형이나 수호와는 전연무관하다는 것만 알면 된다. 74년생 한시를 놓게 될 것이니 전혀 부담감 갖지 말라. 86년생 타의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하자. 98년생 일부나마 확실한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60</p>	<p>44년생 판도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56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생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 80년생 주변인의 덕분에 호강을 하게 되는 국면이다. 92년생 생산성이 없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낫다. 04년생 모여서 의논해본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72</p>
<p>39년생 능부가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 51년생 진행 과정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깔끔해야 성사되리라. 63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75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싹트리라. 87년생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99년생 끝까지 기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5, 61</p>	<p>45년생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57년생 객관화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하므로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69년생 반복적인 작은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81년생 예감하여 왔던 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93년생 당연한 값이 있겠다. 05년생 일거양두의 효과가 크겠다. 행운의 숫자 : 43, 91</p>
<p>40년생 정찬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52년생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64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76년생 대하기 부담스럽다면 확실하게 피해야 하는 것이 낫다. 88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00년생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48, 93</p>	<p>46년생 발호되는 작음과도 같은 이치이니라. 58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70년생 상호 간에 유익하며 윈윈한 소통이 필요한 때이니라. 82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94년생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 있는 판세에 비유할 만하다. 06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행운의 숫자 : 35, 58</p>
<p>41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않은 양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53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만 가닥이 잡힐 것이다. 65년생 당연한 현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77년생 필요로 해 왔던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9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01년생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추 온다. 행운의 숫자 : 49, 77</p>	<p>35년생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과실을 최소화하리라. 47년생 가법계 여겨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59년생 지금 할 일을 미룬다면 미래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71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83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95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피해를 입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59</p>